



솔직한 반성의 미학

강규식_프리랜서 작가

《시인의 모자》 임영조 지음 | 창작과비평사 | 132쪽 | 값 5,000원

임영조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《시인의 모자》는 시인의 말대로 “우리말을 아는 이면 누구나 소통될 수 있다는 자의”에서 “가장 보편적인 소재와 평이한 언어를 개성적인 본질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”온 반성의 산물이다. 오랜 세월 파도에 씻겨 원만해진 돌맹이를 보듯 삶의 모서리를 깎고 다듬어 우리의 두 손에 알맞게 쥐어지는 자연인 것이다. 따라서 이 시에는 사물에 대한 시인의 친진한 동심이 곳곳에 나타난다. 이러한 동심은 과거에 대한 반성의 징표 기능을 하면서 시들을 육박해 들어간다.

김수영이 “나는 너무나 많은 침단의 노래만을 불러왔다 / 나는 정지의 미에 너무나 등한하였다” 《서시》라고 토로한 그 반성의 미학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. 사실 작금의 물질만능주의 시대에서 과연 자신을 반성하며 용서할 수 있는가가 쉬운 일인지를 곰곰이 사색할 때 한 권의 시집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한번 쓰다듬을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.

환갑을 맞이한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며 빠르게, 너무 멀리 온 현재의 나를 반성하고 있다. 이 반성은 시인에게 여태껏 간과해 온 다른 세계를 보여주며 모든 사물에게 경외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“오르막길 등짐은 정분이 난 악처다 / 돌부리에 걸려 몸이 휘청할 때도 / 철썩 붙어 균형을 잡아주는” 《따뜻한 등짐》 고마움이며 아울러 시인의 삶을 지탱하는 무게 중심인 것이다. 여기에서 시인은, 등짐은 신체의 일부이며 그동안 하찮게 지나쳐버린 자신의 과오라고 반성한다. 이제야 시인은 “그동안 나는 많은 생을 놓치고 / 너무 많은 세월을 흘리고 왔다” 《가위 바위 보》고 깨닫는다. 전혀 반성의 틈을 보이지 않고 걸었던 지난날들에 대한 회한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.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양손을

내려다보며 “이 멧쩍고 부끄러운 내 손은 / 어디에 감출까 찢찢매는” 《조팝나무꽃》 것이다.

시인은 침단을 버리고 “오던 길 새삼 뒤돌아보면 이 런! / 나는 너무 멀리 와” 《너무 멀리 와 있네》 버렸다고 자탄한다. 전혀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오직 “이승과 저승 경계조차 지워진 / 길 없는 길을 눈사람처럼 / 아무 생각 없이 겁 없이” 《길 없는 길》 뛰어왔다고 말이다. 이러한 반성은 심지어 태초의 원죄의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고한 사제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이른다. 시인은 “에덴 동산 마루엔 고해소가 보일까 / 푸른 망토 두른 사제라도 만나면 / 내 당장 무릎을 꿇으리라. (중략) / 신의 나라로 망명을 꿈꿔온 죄를 / 날날이 고백하고 사면을 받으리라” 《무지개》고 엄숙하게 기도한다.

그러나 이 반성은 단순한 과거로의 퇴행이 아닌 힘찬 미래로의 화해로 이어지는 심경의 굳은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. “기력이 쇠한 시계여 / 그래도 우리 멈추지 말자” 《지천명》 같은 부분에서는 고고한 선비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.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시인의 약속어음 같은 것이다. 그래서 시인은 “눈 그친 대숲은 보여주는 것이다 / 삭신 온통 얼얼하고 시리게” 《눈 그친 대숲》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준다.

시인의 진정어린 고백을 읽으면서 나는 나도 몰래 내 손을 물끄러미 살펴보았다. 내 손도 별반 다를 바 없는, 그 어디에도 당당하게 내 이력을 보일 수 없는 손이었다. 나에게나 타인에게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손을 보여왔던가. 이제 봄기운이 완연해졌다. 시집을 읽고 며칠 뒤 시인이 책장 압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. 모쪼록 시인의 쾌유를 기원한다. 